

'달빛더비' 열린다...광주FC 승점 사냥 재시동

5일 홈구장서 대구FC와 대결 펠리페-세징야 에이스 자존심 싸움 전남 내일 안산전...연패 탈출 노려

한숨 고른 광주FC가 안방에서 '달빛더비'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오는 5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2020 K리그1 1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1일 열린 2020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김포시민축구단을 꺾고 16강 티켓을 확보했다.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어렵게 우위를 점했지만, 정규 시즌 연패로 무겨워졌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승리가 됐다. 또 뻘뻘한 일정 속에서 로테이션을 활용해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고, 대신 그동안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의 기량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라는 강력한 상대 앞에서 연달아 패한 광주는 '달빛 더비'에서 승점 사냥을 재개해야 한다.

지난주 패배에도 7위(3승 1무 5패·승점 10)는 유지했지만 성남FC와 FC서울이 승점 1점 차로 뒤를 쫓고 있다. 11위인 부산아이파크(승점 8)와도 불과 승점 2점 차에 불과하다.

하위권과 격차를 벌리고 중위권 경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대구전 승리가 중요하다.

광주와 대구를 대표하는 '에이스' 펠리페와 세징야의 경쟁도 흥미롭다.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으로 광주의 우승을 이끈 펠리페는 올 시즌 3골을 기록하고 있다. 동료를 활용한 연계플레이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헤더는 여전하다.

대구 세징야는 올 시즌 6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전면에 서있다. 팀의 승리를 놓고 벌이는 '에이스'들의 자존심 싸움은 팬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대구 FA컵 포함 최근 3연승을 달리며 7경기 연속 무패(5승 2무)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의 기세가 뜨겁지만 광주는 안방 강세로 이번 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대구와 역대전적에서 5승 5무 4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4승 2무를 홈에서 기록하는 등 안방에서 강한 모습이었다.

여기에 FA컵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전력 안배를 한 광주와 달리 대구는 FC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 세징야, 김대원, 정승원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다. 먼 거리를 오가면서 체력 소모가 더 컸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앞선 광주가 더 부지런히 상대를 압박하면서 집중력 있는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

전남드래곤즈도 FA컵 승리 분위기를 이어 정규리그 연패 탈출에 나선다.

전남은 4일 오후 6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안산그리너스와 2020 K리그1 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7라운드 대전원정에서 0-2 시즌 첫 패를 기록한 전남은 앞선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도 1-2로 지면서 시즌 첫 연패를 남겼다.

패배는 했지만 친정으로 돌아온 '광양 루니'의 복귀골이 터진 게 위안이였다. 또 1일 경남FC와의 FA컵 경기에서는 '이적생' 김현욱과 줄리안과 올렉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4-0 승리를 합작했다.

시원한 골퍼레이드를 펼친 전남은 분위기를 살려 정규리그 승리를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상대선수 발목 밝은 윌리안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

광주FC 윌리안(사진)이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받았다.

윌리안은 지난달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15분 경고 카드를 받았다.

포항측 페널티어리어에서 상대 선수 발목을 밝은 게 이유였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회의 동영상 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 사후 징계가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전남 나란히 FA컵 16강에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2020 하나은행 FA컵 16강에 진출했다.

광주는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김포시민축구단과 FA컵 3라운드(24강) 경기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5-4로 이겼다. 안방에서 경남FC를 상대한 전남드래곤즈도 4-0 대승을 거두며, 16강에 올랐다.

광주에는 마지막 2분이 아쉬웠던 '진담승'이었다. 전반 25분 임민혁의 오른발슈팅이 상대 골키퍼 손 맞고 골대로 들어가면서 광주가 선취점을 만들었다.

후반전 김포시민축구단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골키퍼 윤평국이 선방으로 골대를 수성했지만 후반 38분 위기를 넘지 못했다.

윤평국이 김포시민축구단 강민재의 슈팅을 편칭하며 위기를 넘겼지만, 튀어나온 공을 잡은 김동찬의 오른발 슈팅에 광주 골망이 출렁거렸다.

이후 득점 없이 약속된 90분이 끝나면서 연장승부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광주가 먼저 움직였다. 최준혁이 중거리 슈팅을 날리면서 승부를 끝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연장 후반 종료 2분을 남겨놓고 김포시민축구단의 이기재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부차기로 승자가 가려지게 됐다.

광주는 마르코를 시작으로 임민혁, 한희훈, 이순민이 연달아 승부차기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켰다. 이기재를 필두로 강민재, 이강연, 김동찬을 내세운 김포시민축구단도 침착하게 골을 기록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하지만 5번째 승부에서 승패가 갈렸다. 연장전 골 주인공 최준혁이 먼저 골을 기록한 뒤 김동철의 방향을 잃어낸 윤평국이 공을 쳐내면서 광주의 승리가 완성됐다.

광주는 K리그3 강릉시청과의 '강릉더비'에서 승



광주FC 이희군(가운데)이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김포시민축구단과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광주FC 제공>

자가 된 강원FC와 15일 16강전에서 만난다.

전남은 시원한 골퍼레이드를 펼치며 경남을 제압했다.

전남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안재홍이 부상으로 빠져면서 김현욱을 투입한 전남은 전반전을 0-0으로 마감한 뒤 후

반전 대반격에 나섰다.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전남 유니폼을 입은 김현욱이 후반 3분 만에 프리킥으로 이적 후 첫 골을 장식했고, 후반 16분에는 줄리안이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만들었다.

전남은 이어 후반 23분 박찬용의 헤더와 36분 올

렉의 골까지 더해 4-0 대승을 거두고 16강 티켓을 획득했다.

답답했던 공격의 활로를 찾으며 분위기 반전을 이룬 전남은 오는 15일 전북현대와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희찬 리그 12호 도움 잘츠부르크 7시즌 연속 우승



황희찬이 정규리그 우승 시상식에서 메달을 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임성을 눈앞에 둔 '황소' 황희찬(24·잘츠부르크)이 리그 12호 도움을 기록하며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행진을 펼쳤다.

황희찬은 2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SK 슈트름 그라츠와 2019-2020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31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23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뒤 후반 40분 터진 세쿠 코이타의 득점을 도왔다.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달성한 황희찬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도움을 12개로 늘렸다. 황희찬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 공격포인트는 11골 12도움이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잘츠부르크는 후반 8분 제롬 운구엔의 추가골이 터지자 벤치에서 대기하던 황희찬을 교체로 투입했다.

황희찬은 후반 40분 오른쪽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잡아 드리블한 뒤 최전방으로 찰리주기 패스를 했고, 볼을 이어받은 코이타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황희찬의 리그 12호 도움이었다.

잘츠부르크는 후반 42분 추격골을 내줬지만 1분 뒤 코너킥 상황에서 찰리주기를 쫓아 5-2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잘츠부르크는 경기가 끝난 뒤 정규리그 우승 시상식을 열었다. 잘츠부르크는 2013-2014 시즌을 시작으로 무려 7시즌 연속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왕좌를 지켰다.

/연합뉴스



염주테니스장 산뜻해졌네

광주시체육회, 6억 들여 새단장

광주시체육회는 염주테니스장을 새단장했다. 시체육회는 광주시 서구 염주테니스장 개·보수를 위해 6억 여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코트를 재시공하고 조명 및 케이블을 교체하는 등 시설을 보완했다. (사진)

시민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보

강하고 편의성도 높였다.

염주테니스장은 1994년에 준공돼 시체육회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이다.

김장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시설 개보수로 인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테니스 활성화에 주력하겠다"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인류의 반란이 시작된다

7월 15일 대개봉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살아있다
2관	#살아있다
3관	소리꾼, 침입자
4관	#살아있다, 닥크 나이트
5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위대한 쇼맨, 인베이션 2020, 코드 8, 해피 데이
6관	#살아있다
9관	결백
7관 씨네카를	#살아있다, 소리꾼, 침입자
8관 씨네카를	결백, 사라진 시간, 시, 나리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3020 7.3(4)~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20. 7. 22(수)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2020. 7. 25(토)~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20. 7. 29(수)~30(목)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